

학교폭력 막을 男교사가 없다

광주 초·중교사 심각한 '여초현상' 생활지도 취약

광주지역 초교의 여교사 비율이 78.8%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올 현재 초교의 여교사 비율이 76%, 중학교는 67%에 달하는 등 '여초 현상'이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기 남학생이 남사교사를 통해 인성·사회성 함양 교육을 받도록 남교사 충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

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파악한 '2002~2011년 초·중고·시도별 여교사 비율'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 이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여교사 비율이 상승했다. 여교사 비율은 2002년(이하 4월 1일 기준) ▲초 68.2% ▲중 59.7% ▲고 35.2%던 것이 2011년 ▲초 75.8% ▲중 66.8% ▲고 46.2%로 증가했다. 2011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서울의 여교사 비율이 무려 85.0%, 대전은 84.4%였고 부산(80.4%)·대구(81.0%), 광주(78.8%)도 80% 안팎에

달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여교사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남은 59.6%로 전국 평균(75.8%)을 밑돌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초교 교사의 남자 합격자 비율이 2007년 7%, 2008년 15%, 2009년 26%, 2010년 26%, 2011년 25%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는 경기(74.9%)·인천(73.8%)·부산(72.4%)·울산(71.8%)·서울(68.7%) 순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광주의 여교사 비율은 66.4%로 전국 평균(66.8%)에 육박했으며, 전남은 54.5%였

다. 광주 한 중학교 교감은 "생활지도 업무는 짧은 여교사가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부 학생은 여교사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적인 중학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충원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8항쟁 기념 등반대회 조선평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8일 1·8항쟁 24주년을 기념해 대학 서석출발 항쟁기념비에서 출발, 깃대봉과 바람재·늦새삼거리까지 걷는 등반대회를 가졌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 함평 경로당 '비빔밥 살충제' 왜? "고의냐 실수냐"... 수사 답보

노인 1명 사망·5명 치료

지난 5일 함평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비빔밥 중독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3일이 지났지만 독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음식에 들어갔는지를 캐는 경찰수사는 답보상태다.

함평경찰은 8일 주민들의 가검물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methomyl)을 검출, 이 성분이 음식물에 들어간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마을회관 출입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45분경 함평 월야면 한 경로당에서 닭볶음탕과 비빔밥 등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정씨(여·72) 등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정씨는 다음날 오후 숨졌으며 5명은 회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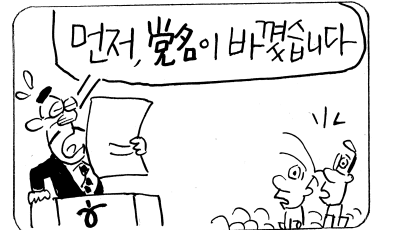
저녁식사 전에 경로당에 주민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메소밀을 음식물에 넣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이 마을이 전주 이씨 집성촌으로 이웃 간 불화를 일으킬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과 주민들이 메소밀을 소량으로 섭취한 것으로 미뤄 고의성과 함께 오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먹은 비빔밥에 섞인 상추 곁잎과 고추대 무침 등 음식물의 종류별 세부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먹은 닭볶음탕이나 비빔밥에 누군가가 고의로 첨가했는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메소밀이 들어가게 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 = 황은희기자 hwang@

나원침 (8477) 김장동



'부동액 컵라면' 먹은 공사 인부 1명 사망

장흥 폭력 고교생 불구속 수사

檢 "학생 신분, 합의 됐다" 경찰 영장 반려

상습적으로 후배 고교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은 '장흥 학교 폭력 사건' [광주일보 1월 6면]과 관련 가해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6일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의자들이 학생신분이고,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장흥경찰은 지난 4일 정군 등 4명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 후배 강도(17)군 등 21명에게서 25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같은 기간 학교 후배 강도(17)군 등 10명을 4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감수사를 통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8일 오전 10시 50분경 고창군 읍내리 A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모(64)씨 등 인부 8명이 일하던 도중 간식거리로 컵라면을 먹었다가 이씨가 숨졌다. 나머지 7명도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중인 인부중 심모(36)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목격자들은 "근로자 중 술집이 씨만 컵라면을 모두 먹었고 나머지 인부들은 컵라면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대부분 먹다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부들에게서 "전날 빌라 4층 현장의 드럼통(120L)에 받아 둔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액이 든 물을 끓여 면에 부어 먹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성분분석 등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또 입원 치료중인 인부의 추가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 = 강철수기자 knews@

설 앞두고 강력사건 활개

경찰서 코앞 금은방 강도 새벽 편의점 40만원 털어

설날을 보름여 앞두고 대낮에 경찰서 앞 금은방이 털리는가 하면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25분경 광주시 북구 오례동 모 금은방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 2명이 침입,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은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수초 만에 끄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당한 금은방은 북부경찰서에서 직선거리로 2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3시5분경 해남군 화원면의 바닷가에서 용의자

를 발견하고 지문 등을 채취하는 한편,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찰은 붉은색과 검은색 계통의 패딩점퍼를 입은 강도 용의자를 추적중이며, 금은방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이날 새벽 5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의자 1명, 종업원 1명(20)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여만원 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170~175cm 가량의 키에 흰색 운동복 차림을 한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또, 지난달 24일 새벽 5시경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김대성·김경민기자 bigkim@

여직원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기지를 발휘 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70대 농촌 노인을 구한 30대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화제.

○"8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보성군 득량면에 거주하는 정모(78)씨가 예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통장 7개를 건네며 예치금 60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라고 했다는 것.

○"통장을 받아든 새마을금고 직원 안모(여·31)씨는 굳은 표정으로 갑자기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는 정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정씨를 안심시킨 뒤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

/동부취재본부 = 선상근기자 sun@

친구를 '멘토'로... '또래상담' 하세요

학교폭력 이대론 안된다

5 전문가 대안

일부선 '위 클래스' 기능 강화해야

사범대 교육 '위기 학생 상담' 도입

전문가들은 그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모두 '형식적'이었다며 실질적인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 폭력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교육당국이 내놓은 '사후약방문'식의 허울뿐인 대책이 점차 은밀·기능화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당국과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형사처벌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이다. 중학교가 학교 폭력의 '화약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지 실질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이성 광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팀장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결과 1년에 1~2차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10.5%이고, 학교 폭력 가해 경험도 10.3%로 조사됐다"며 "10명 중 1명이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셈으로, 이 때문에 무작정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예방 상담 교육은 지금까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 팀장은 그 대안으로 '또래 상담'을 꼽았다. 바쁜 직장생활로 대화하기 힘든 부모님, 다가가기 힘든 선생님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멘토'가 되는 것이

다. 친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심각한 문제의 경우 교사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스템이다.

'위 클래스(wee class)'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한 위 클래스는 지금까지 위기 학생들의 '진단-상담-치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전체 306개교 중 107개교에 위 클래스가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문상담 교사는 22명뿐이고 95명이 1년 계약직 인턴 교사다. 계약약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상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비 교원들이 학교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범대 교육과정에 '위기 학생 상담 능력'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범대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심리·행동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목도 없다.

교사들은 학생부장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지난달 24일 학생부장 교사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수업시수를 줄이고, 다른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급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끝>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2월1일